

“선암사부지 수용 무효” 판결

부산고법 “장관허가 규정 무시”... 전통사찰 무분별 개발 제지

전통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지하기는 부산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고법 특별 1부(재판장 김동기 부장판사)는 4일 대한주택공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선암사(주지 원타) 사찰 부지(부산시 당감동 623) 1만5백평의 강제 수용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한주택공사가 선암사 부지에 내린 사찰부지 수용재결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부산고법원의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라시대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어 88년 전통사찰로 지정된 선암사 주변의 환경이 법적 보호를 받아 지켜지게 된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사찰보존지구와 같은 유적지나 경승지의 환경권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성하고 신도들의 반대 집회와 주택공사 항의 방문 등으로 꾸준히 대응하는 한편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법원, 통도사 앞 아파트 건립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립된 점과 선암사 주변 또한 소송과정 동안 계속된 공사도 지연됨이 심하게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암사 총무 세정스님은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라 낙관하기는 이르며 주공측의 대응에 계속 준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암사의 개별적 입장뿐 아니라 불교 전체적인 수행환경권이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고 소중하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울 장기기증신청 1300건 생명나눔실천회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15일 타워호텔에서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순양호법사(전 동국대의료원 감사과장)와 김성호 후원회장(불교미술전시관 관장, 이원기 후원회 부회장(한국 스트레칭협회장)을 각각 상임이사와 이사로 선임했다. 이날 보고된 98년 11월말 현재 장기기증 신청은 1천3백명으로 지난해 6백64명에서 95% 늘어났다.

김재경 기자

결식아동 지원금 전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6일 ‘맑고 향기롭게’와 25개 산하 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식아동 돕기 지원금 5천5백20만원을 각 복지관에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남한산성주변 폐사지 훼손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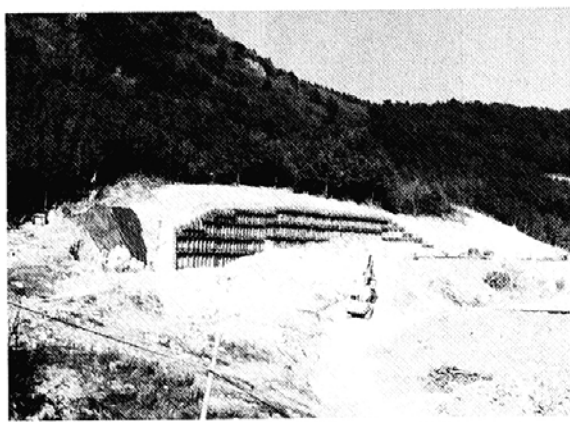
남한산성이 훼손 방지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동림사지 등 폐사지들도 훼손이 가중되고 있다.

여름 수해 때 무너진 성곽 일부를 보수하지 않아 위험하게 방치되고 있는 남한산성에는 동림사지 외에도 한동사지 옥정사지가 역사문화에 대해 사지인지 구분 어려울 정도로 훼손돼 있다. 옥정사 뒷편으로 난 성곽 4백여

m와 제3남용성 양쪽 2백여m는 무너진지 수년이 지나 원형이 거의 사라졌지만 복원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수년동안 복원한 성곽은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군과 경주문화재단은 남한산성 및 사지 훼손 실태 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지연 기자



주택공사가 선암사 부지를 강제수용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전통사찰 보존과 수행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선암사부지 수용 무효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소적새 후원금을 20% 감소

자원봉사자도 줄어

소적새마을(원장 보각스님)의 후원자수는 올해 11월 기준 6만5천5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6만9천8백38명 보다 4천8백여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월부터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던 후원자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7천5백97명의 후원자가 탈퇴했다. 11월 신규후원자도 1백34명에 그치는 등 후원자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2월과 3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별 후원금은 전년도(총후원금 24억5천1백여만원) 대비 평균 20% 선에서 감소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소적새마을이 비인기 사설이라 순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마을의 가족 생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jkim@buddhania.com)

“회암사지 국찰가능성 높다”

경기도박물관 봉황새긴 기와등 발견

회암사지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7개가 확인되었고 소조 나한상, 청기와, 도자, 철기, 석제품 등 수백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출토품중 청기와와 백자, 봉황이 그려진 막새기와 같은 유물은 당시 회암사가 국찰로서 높은 위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8일부터 발굴을 하고 있는 경기도박물관 발굴조사단(단장 장경호)은 11일 회암사지(사적 128호)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현장 설명회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확인된 건물지 가운데 2곳은 발굴조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건물지 5개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담장지 외곽지역에서 다른 담장시설이 확인됐는데 이 담장지는 북쪽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어 담장시설과 관련된 건물지 또는 다른 시설물이 있을 것이라 추정도 나왔다.

출토된 유물 가운데 막새기와류에는 천순경진(天順庚辰), 정통병진(正統丙辰) 등의 중국연호명이 새겨진 것들이 있어 건물의 명칭 및 보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서도 전통병진 명문이 새겨진 기와에는 ‘효령’ 대군의 명칭도 새겨져 있어 조선 세종 18년(1436년) 회암사 중창봉사에 효령대군이 시주한 사실을 알리고 있다.

경기도 박물관 발굴조사단은 회암사지는 고려말 조선초에 걸쳐 2백여년간 국가 및 왕실의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당시 불교건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jgyang@buddhania.com)

연꽃마을 대구동구병원 24일 개원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대구시 동구 서호동 14-1번지에 동구청의 협조로 노인 및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무료병원과 무료식당을 설립, 24일 오전 11시 개원식을 갖는다.

동구의료복지센터는 대지 4백평, 건물 1백75평 규모로서 1층 병원은 내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등의 진료과목을 개설한다. 23개의 침대를 갖춘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X-레이실 등 1차진

료기관으로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어 신경통,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환자 아니라 장애인의 재활의료기관으로도 활용된다. 2층은 무료식당으로 활용되며 30여명의 공간을 따로 확보, 다양한 재가복지사업도 펼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인복지전문법인인 연꽃마을은 연간 1백여명의 노인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053)963-3674

김재경 기자

btn 사장 정우스님 17일 사의표명

불교TV 대표이사 정우스님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불교TV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3회 정기 이사회’에서 정우스님은 “지난 1년간 경영난 극복을 위해 힘써왔지만 한계를 느낀다”며 “경영 전반에 걸친 합

리적 타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23명의 이사회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우스님의 대표이사직 사의 표명과 관련, ‘경영 현안’에 대한 대책 수립의 건과 ‘대표이사 선임’ 등의 안건으로 28일 재소집키로 결의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nia.com)

불교청소년지도자 양성

이이다.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크다. 그들은 기존의 주입식 교리학습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다. 또 교계 밖의 청소년 단체에

서 활동하며 불교적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포교의 첨병이기도 하다.

교계 일선 청소년지도사 사이에서는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정우스님(청소년 교화연합회 보령지부장)은 “지금 당장은 필

요하지 않지만, 전문화시대인 21세기를 맞아 전문적인 청소년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법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채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련 시설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교계에서는 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해 한국청소년을 위해 한국청소년

개발원이 마련한 연수에 참여할 시간도 할애하기 어렵다.” “근무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속 단체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등 교계 청소년 단체·시설의 내부 문제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gobaou@buddhania.com)

뉴스 & 뉴스

보리수마을 대표 김영주씨

노인 유료요양시설인 보리수마을 이사회는 이달 초 명신스님에 이은 새 대표이사에 김영주씨를 임명했다.

이사회는 기존 이사 9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상임이사에 명신스님, 감사에 조창래 관순남씨, 이사에 정복순 김기철 박세순씨를 새로 임명했다.

김재경 기자

대원회 이사장 김용직씨

대원회는 16일 제 60차 정기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김용직이사장 직대를 선출하고, 17일 대원회 사무국장 겸 오성법사를 새로 임명하는 등 조직 정비를 시작했다.

대원회는 당초 11월 30일 박운홍 전 이사장으로부터 이사장 권한을 위임받아 이사장 권한대행 김용직이사를 위원장으로 대원발전위원회를 구성, 그동안의 혼란을 수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원회 신도들의 재학생들이 발전위원회 구성에 문제를 제기, 5인 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원회 설립의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키로 논의했으나 일부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동국대학교수회 총장후보선출

동국대 교수회(회장 유덕기)는 14일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개표를 실시하고, 1·2위로 선출된 총희우 교수(물리·104표 득표)와 조희우 교수(경영·89표 득표)를 차기 총장후보로 재단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 통신투표로 실시된 이번 선거에는 총 유권자 4백93명중 2백28명이 투표, 50.3%의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수회가 내년 2월 정년퇴임교수 해외파견교수 등을 유권자 수에 산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총 유권자 5백10여명중 과반수 투표가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고 밝혔다.

재단이사회는 총희우 총장 연임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교수회의 투표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nia.com)

훈할머니 손녀 교육 후원

훈할머니들기독교후원회(공동회장 정정숙스님 등 3인)는 훈할머니의 손녀인 잔나(21)와 시누이(17) 양의 교육을 후원하기로 했다.

후원회 강인성 부회장(대구경북련회 회장)은 14일 “잔나 양의 영남대 인문사회학과 입학에 학교의 도움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강북복지관 ‘겨울나기캠프’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혜창스님)은 12일 복지관 3층강당에서 장애인 및 노인 1백여명을 초청, ‘겨울나기 건강잔치’를 열었다. 강북복지관은 이날 위로잔치를 베풀 뒤 장애인들에게 힐링 및 보자기들을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화엄학림 제5기 학인 모집 공고

실상사 화엄학림은 화엄경을 중심 경전으로 하여 강의, 연구, 토론 위주로 공부하는 중단 교육법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신심과 원력이 충만한 스님들이 많이 입학하기를 바랍니다.

- 교수진 : 연관스님, 도법스님, 법성스님, 현응스님
- 교과목 : 화엄현담, 화엄경(80화엄), 유식학, 화엄학개론, 화엄사상사, 일승심현론, 망진환원관, 법계판관, 화엄약책, 삼성원용관 등
- 특강 : 필요할 경우 무시로 강의함
- 응시자격 : 비구로서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및 예정자(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학부)이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비구 사미
- 원서교부 및 접수 : 1999년 12월 1일 ~ 1999년 3월 5일(음력 10월 13일 ~ 1월 18일)
- 전형일시 : 1999년 3월 9일 (음력 1월 22일) 오후 1시 실상사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입학일시 : 1999년 3월 15일 (음력 1월 28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증서(예정)1부
사진 5매(반명함판)
승려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각 1매
- 문의전화 : 0671)634-3860, 3861 (화엄학림)
634-3031 (사 무 실)
634-3757 (주 지 실)

● 입학을 원하는 스님들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지리산 실상사 (우:590-850)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는(자연향) 테크레과 엔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항비 香妃!

이 항비를 신권현(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족성물질의 성분이 신권현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보인다. 항비는 자연향인 피몬트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한다. 배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현(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하여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는 항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항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동의 효능, 인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땀발이 건조 딱딱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인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담노나 감성신으로 고통을 당한다

27차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체질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악이든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 방법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항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체 박사님의 항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항비팩을 배꼽(신권현)에 찌는 것으로 효과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용해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항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항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